



# 광나무

(학명 : *Ligustrum japonicum*, 물푸레나무과)



**광**나무는 물푸레나무과 나무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이남에 자라지만 대구 지역에서도 월동이 되는 상록소교목이다. 쥐똥나무(열매가 익으면 까만 쥐똥과 아주 비슷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음)도 물푸레나무과 나무로 화어나 꽃의 모양은 서로 닮았다. 쥐똥나무는 전국적으로 자라므로 밀원식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광나무는 생육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광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좋은 밀원이 될 것이다.

광나무는 높이 3~5m에 달하며 가지에 피목(皮目; 나무의 껍질에 점이 있는 것으로 이 피목을 통하여서도 호흡을 하며, 피목의 유무, 크기, 배열 등도 수목의 식별에 도움이 된다)이 뚜렷하다. 잎은 대생하며 길이 3~10cm, 너비 2.5~4.5cm로 난형, 넓은 타원형 또는 난상장타원형이며 예두 또는 둔두이고 예저이며 거치가 없다. 길이 5~12cm의 복층상화서가 햇가지 끝에 달리며 꽃은



광나무의 개화 전경

6~7월에 흰색으로 핀다. 지난 두 해 대구지역에서는 6월초에 피어 20여일 있었으며, 화분색은 암황색이라고 한다. 화관은 길이 5~6mm이며 깊게 4개로 갈라지며 수술 2개, 암술 한 개가 있다. 열매는 핵과로 타원형이며 길이 8~10mm이며, 쥐똥나무의 열매(7~8mm)보다 조금 크다. 열매는 10~11월에 자흑색으로 익으며 겨울동안에도 가지에 달려 있다. 상록수이므로 잎이 달려 있고, 열매의 색이 흑자색으로 눈에 확 띄는 색이 아니지만, 꽃이 온 나무를 덮을 정도로 많이 피므로 열



경산시내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광나무. 키가 5m쯤 된다.

매도 그 정도로 많다. 과육에 발아 억제물질이 있으므로 채종후 과육을 제거한 후 직파하거나 습기있는 모래와 저장하였다가 파종한다. 3~4월, 6~7월에 가지삽목을 하여도 발근이 잘 된다고 한다.

수년전 대구시 소공원에 있는 큰 나무 밑에 5cm 정도의 묘목이 소복히 나 있는 것을 학교에 옮겨 심었더니, 지금 백여 본이 3m쯤 자랐다. 발아도 잘 되고, 땅도 별로 가리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큰 나무 밑에 어린 나무가 없는 것을 보니, 양수(陽樹; 어릴 때에 음지에서 잘 생육하지 못하는 수종)일 것이다.

광나무와 비슷한 수종으로 제주광나무(*L. lucidum*)가 있다. 제주광나무는 광나무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크다. 잎 끝이 가늘게 뾰족해지며 뒤로 젖혀진다. 잎 뒷면 측맥이 뚜렷하고 중륵을 중심으로 양쪽이 오물려 진다. 밀원으로서의 가치는 광나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지역에 광나무를 대규모로 심은 분은 전 대구시장 이상희씨(대구시장으로 오시기 전 산림청장을 역임하셨으며, 경북지사, 내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중이시다)이다. 그 분은 나무와 꽃에 대한 조예가 깊어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2, 3"라는 방대한 책자도 내셨으며, 가끔 나무와 꽃에 대한 칼럼도 쓰신다. 그 분의 지론이 '대구에는 상록수,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니, 광나무를 많이 심은 듯하다. 대구 인근인 경산시에도 이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대구의 어느 양봉원 원장은 시내 아파트 옥상에서 벌을 기르는데, 광나무가 좋은 밀원이라고 칭찬이 대단하셨다. 광나무인지 쥐똥나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쥐똥나무는 아까시나무와 개화기가 겹치므로 광나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세계적으로 기온이 점점 올라간다고 하고, 지난 수십년간 기온상승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으므로 광나무의 생육지는 계속 북상할 것이다. 광나무는 지금까지는 한정된 지역에서 밀원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넓은 지역에서 중요한 밀원식물로 이용될 것이 예상된다.



광나무의 열매. 한겨울에도 흑자색의 열매가 한 화서에 300여개나 달려있다.